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1월 9일 (제1131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모든 것이 은혜

중환자실에 장기간 누워 있다가 일반병실로 옮긴 어느 성도가 전화로 나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목사님, 물 위를 걷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땅을 밟고 걷는 것도 기적이예요.”

나는 그 말에 무릎을 딱 치며 “맞다, 맞아. 일상생활이 기적인 것을 아는 너는 특도한 자다.”라고 말해줬다.

일상생활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러나 너무 당연한, 아니 다람쥐 쳇바퀴라며 툭툭거리지 않으면 다행일 그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병원에 있는 자들, 전쟁을 피해 고국을 떠난 난민들, 갑자기 뜻하지 않은 재앙을 만난 자들... 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기적처럼 보이고 느껴질 것이다. 그렇다. 우리의 일상은 기적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우리는 늘 체험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와 직면하다 보니 이 말이 더욱 실감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일상이 기적이라 느끼지 못하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아침이 되면 학교에 가고, 회사에 가는 것, 친구를 만나고, 배고프면 무엇으로든 배를 채울 수 있는 것, 지하철을 타러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뒤편 수 있는 것, 그리고 교회에 나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 거리다.

나는 요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 말에 큰 은혜를 받는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남들은 차가 있는데 나는 없다고 투덜거리면 안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은 해외 여행을 가는데 나는 매일 집에만 있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옆집 아들은 명문대에 갔는데 우리 아들은 지방대에 갔다고 속상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일상을 감사하자.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자.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그러면 2022년은 행복하고 건강할 것이다.

나의 믿음은 오직 “예”뿐이었다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예배를 통하여 목사님은 ‘오직 “예”로써 순종하는 믿음으로 매사 전심전력하는 새해가 되자’고 선포하셨다.

“2022년 새해, 이제 목회 38년에 들어가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오직 ‘예’뿐이었지 ‘아니오’가 없었습니다. 이 성경은 ‘예’, ‘아니오’ 둘로 갈라집니다. 축복과 저주, 사랑과 미움, 천국과 지옥... 세상은 5분법, 7분법, 여러 스펙트럼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2분법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보고 하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가면 여러분 삶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이야기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도 그 예언의 말씀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

사무엘의 말을 무시했던 사울왕, 예수님의 예언을 무시했던 가롯 유다, 모두 비참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뿐이어야 합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지시하면 ‘Yes, Sir(예셀)’ 하듯,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예셀!’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만든 자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 중의 지혜라고 누차 말하지 않습니까. ‘실질조 해라.’ ‘예셀!’, ‘기도해라.’ ‘예셀!’, ‘봉사해라.’ ‘예셀!’, ‘전도해라.’ ‘예셀!’, ‘용서해라.’ ‘예



예수중심교회 송구영신예배-광경(KBS88체육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아들, 딸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부모의 말을 따르다보면 부모가 해주는 것을 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전에는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분의 말씀이라면 ‘예’하고 왔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며 먼저 이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숫군을 세웠으니 나팔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렐6:16~19).

이와 같이 성경에 멸망한 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셀!’, ‘사랑해라.’ ‘예셀!’, ‘기뻐해라.’ ‘예셀!’, ‘감사해라.’ ‘예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인들에게 한 말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후1:18~20). 2022년 새해, 하나님 말씀에 오직 ‘예셀!’로 순종하며 매사 전심전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 및 수요일예배 대면예배 안내

집중완료자만으로 70% - 1체육관, 1차 및 비접종자는 30% - 2체육관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6:36~39)

바보들은 결심만 하고 성공자는 시도한다

만고의 진리요, 행로(行路)법칙 중 하나가 바로 '자업자득(自業自得)'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의 과보(果報)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70년 넘게 살아보니 이 말이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저는 본시 농사꾼의 자녀입니다. 어릴 적 우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실 때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많이 도와드렸는데, 그 때 보니까 씨를 심은 대로 열매가 납니다. 벼를 심으면 쌀이 나고, 보리를 심으니 보리가 나고, 밭에 무를 심으니 무가 납니다. 그런데 씨를 하나 뿌리면 어떤 것은 30배도 거두고, 어떤 것은 60배도 거두고, 심지어는 100배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사도 농사 법칙과 동일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법칙을 근거로 우리 성도들이 2022년에 잘 살고, 잘 되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듣고 실천하여 2022년에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바보들은 늘 결심만 하다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꼭 이 말씀을 실천합시다. 배움의 끝은 실천이니까요.

콩을 심으면 콩 나지 팥 나지 않는다

여러분, 남에게 베풀며 살면 내가 풍성해 집니다. 씨를 심으면 거두게 되는데, 그것이 최소 30배요, 100배까지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눅6:38). 요즘은 물건을 전자저울에 달아 보고 양을 딱 맞춰서 판매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는 주로 말이나 되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때 인색한 장사꾼은 되를 손으로 싹 밀어서 줬습니다. 그러나 후한 장사꾼은 말이나 되를 흔들어 더 들어가게 하고, 꺾꺾 누르고, 위로 수북하게 줬습니다. 우리에게 늘 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거기에 흔들어 눌러서 부와 장수까지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록펠러가 이 말씀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더욱 부하게 하였고, 장수까지 누리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을 생각해봅시다. 우리 교단이 본성전도 없이 세계를 교구화 삼을 수 있었던 초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비디오테이프와 오디오테이프를 무료로 전 세계에 준 것 때문입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미국으로 비디오테이프 10개를 보내려면 1인당 십만 원 가량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지요. 그래도 세계 어디서든 신청만 하면 무

료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축복하셨고, 비디오가 들어간 지역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해외선교를 나가면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다 털어주고 옵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이 제 마음을 알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자세로 저를 도와 일해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이탈리아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식민지 백성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서 의인이라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천



총회장 이초석 목사

사를 보 내어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보내셨고, 베드로를 통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초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라는 여제자 역시 노인과 과부에게 많이 베푼 자입니다. 그런 그가 죽자 그곳의 제자들이 급히 베드로를 청하여 그에게 받은 사랑, 그가 베풀어준 것을 보이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를 위해 기도했고, 다비다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200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 된 것도 그들이 전 세계에 손을 펴서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외아들을 주셔서 인류를 얻었지 않았습니까? 자고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주신다’는 말씀 앞 구절을 눈여겨 읽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산상수

훈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눅6:27),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눅6:35),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눅6:3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주라 그리하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괴로운 자와 마땅히 베풀 자에게 베푸는 것은 기본이

요, 사랑을 받지 못할 자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주리면 먹고, 그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가 헐벗었으면 입히라는 것입니다(롬12:20). “뽕통이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도 주면 후히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파서 물이 솟으면 그랄 목자들이 그것을 빼앗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것을 주고 다른 곳으로 옮겨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큰 우물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창26). 출애굽기 23장에는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집을 싣고 었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찌니라”(출23:4~5)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벧전3:9)고 했습니다. ‘복을 유업으로 받기 원하냐?’ 그러면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베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 대신 저주를, 베풀기보다 강탈하기를 즐기는 자는 어찌 될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니 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웃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 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 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시109:17~18). 모르드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하만은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준비한 장대에 자신이 달렸습니까(에7).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놀리던 산헤립은 그의 18만 5천명의 군대가 전멸하고, 자신도 그 몸에서 난 자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대하32). 다윗을 저주하기에 급급했던 사울은 그 저주가 오히려 자신과 자녀들에게 임해 세 아들들과 함께 칼에 죽임을 당했고, 그 시신마저 베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심비에 새기고 살았기에 오늘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이단의 괴수로 모함했을 때도, 제가 안수한 목사가 배신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저를 저주하며 떠났을 때도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제 잔이 넘치게 하였고, 반면 그들은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목도케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롬12:14~18).

부모도 인색하면 싫어한다

요셉도 원수 같은 형제들을 먹이고 보살폈고(창45:5), 스테반도 자신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친 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일개 로마병정에 잡혀 십자가에서 갇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23:34)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열매가 이 세상에 주렁주렁 열린 것입니다.

베풀면서 사는 자가 되십시오. 마땅히 베풀 자에게 베풀고, 베풀고 싶지 않은 원수도 축복하고 베풀며 삽시다.

베풀 게 없다고요? 웃음을 주는 삶, 격려하는 말, 그리고 중보기도, 모두 베푸는 겁니다. 행여 원수가 오른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는 마음으로 다가가세요(마5:39). 그러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는 말씀이 당신 삶 속에 넘치도록 이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2, 새해를 맞아 예수중심교단 목회자들의 신년사를 듣는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마음으로 하는 것은 책임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잠4:23). 성공과 실패, 천국과 지옥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성형이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아니며,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인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또는 학업 성공을 위해 간판이나 책상을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녹색 에너지로 바꾼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식당을 바꾼다고 더 좋은 음식이 나오는 것도 아니며, 나쁜 일꾼은 새 연장을 사줘도 소용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은혜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는 마음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일에 온 마음을 다해, 온 영혼을 다해 매진합시다. 이미 성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가능성을 탐구해 봅시다. 불가능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책임을 다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 우리의 문제, 우리에 대해 책임을 지십니다! 책임이란 겸손과 타인에 대한 봉사입니다. 책임은 또한 주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도권, 용기, 대담함, 이타심, 겸손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능력을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일에 불완전한 것보다 작은 일에 충실하고 책임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큰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축복의 척도는 우리의 충실함과 책임감에 비례합니다! 우리 축복의 잔은 우리의 책임과 충성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담의 무책임은 그를 낙원에서 추방시키고, 두려움, 거짓말, 저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책임과 신실함을 거부하고 스스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무책임함으로 자신의 삶을 망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을 지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 전체 교리에 대한 책임 있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회피하라고 부르시지 않고,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우리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 책임감 있게 일하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건강, 번영, 사랑 및 충실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권
통역관 슬라바 목사

100% 성장을 향해 전심전력합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듯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너무나도 감격과 감동 그 자체입니다. 참 소중하고 보석 같은 예수중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또 총회장 목사님의 깊은 관심과 기도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총회장 목사님이 “성장통증”에 대해 설교하신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성장통증 후에 부쩍 자란 교회를 봅시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는 생

각을 해봅니다. 이곳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성장은 물론 직분자들의 신앙이 무르익는 것을 보고 느낍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순간들이 다 소중한 것, 귀했고, 필요했고, 우리를 도왔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사랑하는 예수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조그만 일에 감사하며, 총회장 목사님 말씀처럼 전심전력 충성하여 하나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에는 태산 같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우루과이 예수중심교회는 100% 성장했습니다. 이삭이 당년

에 백배의 복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어려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자란만큼 교회도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도 100%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멀리 있지만 우리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서로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총회장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 100% 성장을 향해 출발합니다. 전심전력의 자세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루과이에서 스페인어
통역관 이현숙 선교사

무단횡단하지 맙시다



또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보니 참 여러 가지로 기다림의 연속이었던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만 해도 대면예배의 기다림, 격리의 기다림과 백신의 기다림, 가족과 재회의 기다림 등등... 누구나가 힘들었던 기다림의 길에 서서 보낸 한 해였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쉽고 편한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인사를 하나 봅니다. 꽃길은 꽃이 있는 길입니다. 길이 울

푹푹통해도, 진흙길이나 오솔길이라도 꽃이 있으면 꽃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꽃길을 걸어도 동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길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기 귀찮으니까 무단횡단을 합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때를 기다리는 것이 힘드니까 주님보다 내가 좀 더 빨리 가려고 무단횡단을 해버립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의 안전한 불이 켜질 때

그때 나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 함께 하시면 가시밭길, 비바람이 몰아치는 길이라도 천국 가는 꽃길이 될 것입니다. 나침반이 북극을 가리키듯 나의 마음과 시선은 언제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꽃길의 새해로 에녹처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새해를 맞이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일본 서동경에서
일본어 통역관 김경숙 목사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신년사 ::

:: 귀를 기울이세요 ::

꺾꺾이 주의 길을 가리라



목사의 길은 아무나 갈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 길은 외롭고 쓸쓸한 길, 고독한 길이다. 좁다 못해서 협착한 길이요,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아니요, 훌쩍 떠날 수 있는 길도 아니요, 사명자의 길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이다. 누구와 상론할 수 있는 길도 아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야 하는 길이다. 그 누구에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백층에서 사는 사람과 십층에서 사는 사람, 또는 일층에서 사는 사람은 보는 것도 다르지만 사유도 또한 다르다. 일층에서 사는 사람은 절대 백층의 사람이 본걸 볼 수 없다.

요사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더욱 외로운 것 같다. 어찌 보면 기도는 나와의 고독한 전쟁이다. 나를 이겨내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한다. 주의 종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다. 양을 치라고, 먹이라고, 살찌워달라고 부탁하신 분은 자기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주님이다. 그 분은 피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나를 위해 다 흘리신 분이다. 그것도 자원하여 선물로 주셨기에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 기도하면 할수록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차피 한 세상이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시간은 흘러가고, 죽음의 날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찾아온다. 태어날 때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에는 순서가 없는 시한폭탄 같은 인생에 죽은 후에는 반드시 영혼의 심판이 있어서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부활로 나아간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옥의 문은 닫혔고 천국에서 받아야 하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게 된다.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이끈 자에게는 왕권뿐 아니라 많은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은 자는 많은 상급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자는 말할 것도 없이 그 나라에서 왕권을 누린다. 모든 예수 믿는 자의 최종목적이 왕권일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말씀중심으로, 기도중심으로, 전도중심으로, 예배중심으로, 봉사중심으로 살아야 할뿐 아니라 충성과 순종은 기본이어야 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난다. “오호라 곤고하도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렵도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가 힘들어 포기하는 자들이 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불렀다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불렀는지 의심도 한다. 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불렀겠지만 내가 좋아서 자원하여 선택한 길이다. 이 세상에서 술의 노예가 되어 소망도 없이 어둠 속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전전긍긍하는 나에게 빛 속에서 살 수 있는 인생을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 내가 이 길을 끝까지 아니 가리요. 핍박이나 환난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벤세메스로 가는 어미 소는 새끼소가 울어대도, 자기 자신이 제물로 드러지는데도 끈게 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법계를 수레에 실었기 때문이다. 목사는 양을 천국까지 이끌어가야 하는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 소는 반드시 사라지고 법계만 빛을 뿜어야 하리!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그가 나타나리라. 아브라함은 백세에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믿음으로 받은 아들이 한창 청년이어서 보기 좋을 때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다. 그때 그는 누구와도 상론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론의 대상이 아니라 집행해야 한다는 결순종으로 배워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도 상론할 수 없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어두움을 타서 새벽에 가만히 떠난다. 하나님의 일은 숨기는 것이 지혜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인간들의 제재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아들을 드리는 것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달은 아브라함은 걸어서 3일 길을 가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요동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 같으면 어찌할 것인가? 교회가 어렵다는데 내가 재산 전부를 드릴 수 있을까? 아내와 토론하여 드린다고 하거나 않을까? 아브라함의 3일 길은 얼마나 자신의 마음과 많은 싸움을 벌였을까? 결국 그는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내어야 말았다. 그리고 믿음의 전당에 이런 말을 남겼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고... 나도 나를 꺾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는 2022년을 맞이하리라. 할렐루야!

중국 연길교회 베드로 목사

열심인 우리 교회

우리 예수중심교인들의 피 속에는 누구나 ‘열심’과 ‘최선’이라는 DNA가 흐르고 있다. 총회장 목사의 반복적인 가르침으로 인해 우리 교인들은 ‘매사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열심을 내어 전심전력을 다하는 삶’이 습관화 되어 있다. 이렇게 교회서 배운 습관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었고, 매사 열심히, 성실하게 모든 일을 완수하는 능동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최근에 청년부에서 ‘예수님의 메신저’라는 뮤지컬 공연을 하였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를 다니며 청년 크리스천과 크리스티나가 본인의 모습을 돌아쳐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내용이었다. 이 뮤지컬을 준비하며 라오디게아교회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았다. 요한계시록에 다른 교회들은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은 것과 달리 라오디게아교회는 책망만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3:9). 라오디게아교회는 물질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본인들이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착각에 주를 향한 열심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진단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신앙의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다. 라오디게아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대충, 대강, 적당히 하는 행동은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다.

새로운 2022년, 우리 삶에 열심을 내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 예수중심교회 성도 모두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전심전력하여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보자.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보자. 할렐루야!

송현혜

주님이 주신 보약, 수면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잠자는 시간은 우리 인생의 1/3을 차지하며 대부분 평균적으로 7시간 전후의 시간을 자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수면이 박탈된 고양이나 쥐가 2주안에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수면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생리적인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잠자는 시간에 우리 몸은 단순히 쉬는 것 이상으로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켜주며 성장호르몬도 분비시키고, 하루 중 학습된 내용을 기억으로 저장시키며, 불편하고 불안한 감정들을 꿈을 통해 정화시켜주기도 합니다. 큰 병이 걸리거나 우울하거나 불안증이 있거나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며, 건강하지 못한 수면이 신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에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수면을 위해 어떠한 습관과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째,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기. 둘째, 잠자는 환경(너무 환하거나 덥거나 추운)을 관리하기. 셋째,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기(자기직전의 과도한 운동은 제한). 넷째, 카페인 들어있는 음료나 음식은 피하기. 다섯째, 잠들기 전에 따뜻한 목욕하기. 여섯째, 과식하거나 허기진 상태는 피하기. 일곱째, 잠자리에서 TV시청, 독서, 핸드폰 보는 것 피하기. 여덟째, 잠이 오지 않은 경우 다른 이완 활동하기. 아홉째, 밤에 밝은 빛에 노출되지 않기.

잠이 잘 들지 않는 경우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첫째로는 더 잘 자기 위해 지나치게 애쓰지 않기. 둘째로는 자지 않는 시간에

수면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놓아주기. 셋째로는 잠이 잘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수용(acceptance)하고, 잠이 안 올 때 잠시 침대에서 나오기 등이 있습니다.

만일 일주일에 3회 이상 수면의 문제가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양방 혹은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대개 수면의 문제는 마음의 건강과 관련이 많으며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려움이나 갈등이 없는지 살펴보고, 최근에 바쁘고 많이 힘들게 살고 있다면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한번쯤 자신을 보살피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시127:2).

Dr. 설재현 집사
kseolmed@hanmail.net

재기(再起)

산발랏 도비아 비아냥
여우도 넘나드는 담장이라
비웃을 뒤로하고
한 손에 병기, 한 손에 연장
별 보고 일어나 별 보고 누우니
무너진 성 재기의 나팔이
가신 님 위하고 오실 님 맞으니
재기의 깃발은 꿈나래 춤을 추네

朋友